

아이들아!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날아오르자

글 | 김서정

어른들의 보호(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자면, 간섭) 없이 커다란 집에 혼자 살면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아이, 경찰 들쭉은 가볍게 지붕 위로 던져 올려버릴 정도로 힘이 세고, 마을 아이들 모두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흥청망청 뿌릴 수 있는 금화를 가방 가득 갖고 있을 정도로 돈이 많은 아이, 학교 수업이나 어른에 대한 예의 따위는 콧바람 한 번으로 무시해 버리는 아이, 뽀뽀(뽀뽀 시리즈).

남자친구를 위해 용감하게 집을 나와 골 깊은 두 집안 사이의 원한을 허문다는 점에서 줄리엣에 곧잘 견주어지지만, 훨씬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결국 살아남아 해피 엔딩을 맞는다는 점에서 줄리엣과는 아주 다른 로냐(산적의 딸 로냐). 구박 받는 불행한 고아에서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한 왕자로 탈바꿈했지만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임무를 피할 수는 없는 미오(미오 나의 미오), 힘겹게 살다 비극적으로 죽은 뒤 간 저세상에서도 전쟁을 겪다 가슴 에이는 죽음을 다시 맞는 카알과 요나탄 형제(사자왕 형제의 모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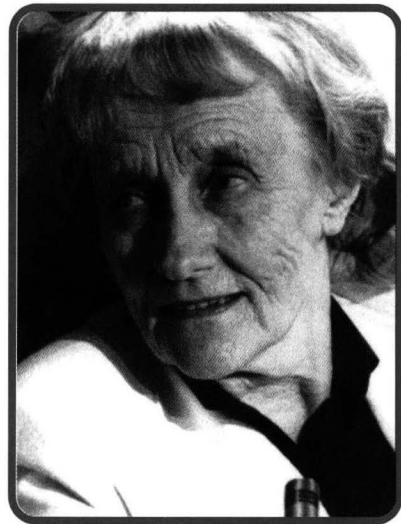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 세상을 떠돌며 온갖 곡절을 겪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새아빠 새엄마를 만나는 라스무스(라스무스와 방랑자), 등에 모터를 달고 헬리콥터처럼 날아다니며 세상을 향해 거침없는 풍자를 던져대는 카알손(지붕 위의 카알손).... 그 외에도 많다. 야무지고 귀여운 로타, 천방지축 장난꾸러기 에밀, 제법 쓸 만한 어린 탐정 칼레.

동화작가로서 평생에 하나만 창조해도 대성공이랄 수 있을 만한 이런 캐릭터들을 혼자서 줄줄이 만들어낸 작가가 바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다. 안데르센이 동화라는 장르의 씨앗을 뿌려 싹을 틔운 동화의 아버지라면, 그 씨앗들을 키워 울창한 수목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 동화의 어머니로 불릴 만한 작가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이외의 이름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정체성 뚜렷한 수많은 캐릭터 · '동화의 어머니'

평생 오로지 어린이책만을 썼었다는 점, 백여 편의 작품 모두 아이들이 친근하게 읽을 수 있는 수준이면서도 높은 작품성을 유지한다는 점, 환상의 존재나 관념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하는 어린이로서의 정체성이 생생하게 살아 있는 캐릭터들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린드그렌은 어쩌면 안데르센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받아 마땅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화작가로서 안데르센과 린드그렌에게는 위대한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이 동화를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하고도 치열하게 드러내는 언어 예술의 장으로 여겼다는 점이다.

1917년 스웨덴의 작은 산골 마을 뷔머비에서 농부의 네 아이들 중 둘째딸로 태어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우리보다 더 재미있게 논 아이들이 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신나게 뛰놀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 텔레비전, 라디오도, 자동차도 없었지만, 재미있는 자연과 재미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키울



▶ 동화의 어머니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수 있는 무한한 공간이 있었던 덕분이었다.

헛간은 공주가 갇힌 성이 되고, 두엄 더미는 유리산이 되고, 웅덩이는 반짝이는 호수가 되었던 그 시절, 린드그렌은 동생과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죽지 않은 게 신기할 만큼” 놀았지만, 한편 생일보다 더 중요한 세례식 날까지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하기도 했다.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말솜씨, 너그러웠지만 강인한 생활력을 가졌던 어머니에게서 배운 생활신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일 해라”는 그녀의 일생을 이끈 두 좌표였다.

‘놀다가 죽지 않은 게 신기했던’ 어린 시절

모든 사람이 저 아이는 작가가 될 거라고 여겼지만 “책은 절대로 안 쓰리라고 혼자서 고집을 부렸”던 그녀는, 그러나 1944년 겨울, 결국 《내 이름은 뽀뽀 룽스타킹》을 쓰게 되었다. 눈 오는 날 산책을 나갔다가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하룻없이 침대에 일주일을 누워 있어야 했던 탓이었다. ‘뽀뽀 룽스타킹’은 감기로 앓던 그녀의 어린 딸이 병상에서 느닷없이 입에 올린 이름이었고, 뽀뽀 룽스타킹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딸의 부탁에 린드그렌은, 뒤죽박죽 별장에서 천방지축으로 사는 여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즉석에서 꾸며낸 것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5년, 몇 군데 출판사에서 이렇게 버릇없고, 어른과 사회를 모독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이의 불온한 이야기는 내줄 수 없다는 퇴짜를 맞은 후에야 가까스로 나온 뽀뽀는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어린이문학의 고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스웨덴은 뽀뽀가 나온 1945년을 스웨덴 어린이문학 원년으로 삼고 있다.

이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은 “쓰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많이 썼을 뿐 아니라 다양하게 썼다. 거침없는 환상, 다층적인 구조, 깊이 있는 상징을 구사하는 장편 판타지들, 아기자기하고 작은 아이들의 귀여운 생활 이야기, 피 끓는 아이들이 스틸 넘치는 모험을 즐기며 살인범을 밝혀내고 도둑을 잡는 탐정 이야기, 펄박박하는 아이들의 눈으로 날카롭게 파헤쳐 고발하는 어두운 세상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작가의 메시지와 작품의 구조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맞물려서 탄탄한 문학을 만들어낸다.

‘뽀뽀 룽스타킹’의 1945년, ‘스웨덴 어린이문학 원년’

그녀의 책들은 가히 동화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많은 책을 통해 그녀는 한결같이 과장하지 않고 위압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솜사탕 같은 잠언성 진술로 향기를 풍기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책 모두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들어 있다고 고백했으며, 자기 책을 읽은 독자 중 단 한 명의 아이만이라도 즐거워한다면 그걸로 행복하다는 소박한 바람을 피력했다.

물론 그녀의 책에는 즐거움이 풍성하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요소들이 린드그렌 문학을 더욱 탄탄한 힘으로 떠받치고 있다. 그것은 자유와 행복을 향한 갈망, 그것을 얻기 위해 받아들이는 의무와 희생, 때로는 여유와 유머 같은 것들이다. 그녀의 수많은 어린 주인공들이 얼마나 의연하고 강인하게 자기 앞의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는가. 또는 얼마나 유쾌하고 날렵하게 날아오르는가. 그리하여 그들이 도달한 곳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이다.

그녀의 자서전 제목인 《사라진 나라》는 흐르는 시간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녀의 어린 시절을 가리키지만, 역설적으로 독자의 마음 속에 살아 있는 자유와 평화의 나라를 의미하는 듯하다. 그런 나라가 가능한 곳,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곳이 어린이문학이라는 영토이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는 걸출한 작가가 어린이문학을 택한 것도 아마 그래서가 아니었을까. 2002년 1월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린드그렌은 이제 영원한 자유와 평화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한지**

이 글쓴 김서정은

동화작가, 평론가, 번역가로 활동중이다.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 뮌헨대학에서 공부했다. 현재 숙명여대 겸임교수로 동화를 가르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평론집 《어린이문학 만세》《멋진 판타지》《동화책과 그림책》《두로크 강을 건너서》《웅감한 꼬마 생쥐》《민거나 말거나 동물 이야기》《나의 사적동》 등이 있다. 《미오 나의 미오》《일주일 내내 토요일》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